

---

# 박물관 교육의 사회적 위기 대응 성과와 성찰적 과제

-코로나19 유행기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교육 운영-

I.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교육 지형의 변동

II. 박물관의 위기 대응과 온라인 교육 이행

III. 온라인 교육 운영 성과와 의의

IV. 온라인 교육의 성찰적 과제

V. 박물관 교육의 사회적 지향

## 박물관 교육의 사회적 위기 대응 성과와 성찰적 과제 -코로나19 유행기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교육 운영-

### I.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교육 지형의 변동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이하 코로나19)의 발병 양상과 수준을 평가하고 대유행(Pandemic)을 진단·선언하였다.<sup>1)</sup> 과거의 역사에서 전염병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규모 희생을 낳은 사례들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유행한 감염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대외관계의 추세 속에서 인류의 단선적인 교류를 따라 전염병이 전파되며 일어난 현상으로,<sup>2)</sup> 대체로 사람들이 감염되는 범위는 특정 지리적 권역에 한정되는 편이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감염은 매우 긴밀하며 상당히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결연된 세계화의 토대 위에서 인류와 물류의 복합적인 교차로 파급된다. 특히 코로나19는 과거에 발생했던 그 어떤 전염병들보다도 감염력이 압도적으로 강한데, 현재 조밀하게 구축된 네트워크에 편승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또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공간과 공간이 격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교류도 단절되었다. 결국 사람이 공간을 통과하는 일이 강한

1) WHO 사무총장 브리핑,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검색일: 2021. 9. 10.).

2) 윌리엄 H. 맥닐 지음, 허정 옮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한울, 1998), pp.219-256.

제약을 받게 되면서, 사람의 이동을 기반으로 활성화되는 사회 운영 동력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병리적 위기의 만연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켰다.

그 위기는 사람 간의 소통·교류 등의 관계를 매개로 개인적 존립과 사회적 공존의 의미와 가치를 궁구하는 교육 부문에도 위중하게 미쳤다. 수많은 학습자가 교수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직접 교육의 기회를 단기간에 걸쳐 잃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교육 부문에 미친 영향을 집계하여 일별로 실시간 공표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 통계 연구소의 정보를 살펴보면,<sup>3)</sup> 적지 않은 수의 정규 등록 학습자들이 장기간 대유행·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가중되는 학습 제약을 감내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불가항력의 제약에 직면하여 교육제도를 구성하는 정규 교육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이미 일상에 정착한 각종 사회 교육의 학습자들까지 기회의 상실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지형의 변동 과정 속에서 박물관은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사회적 위기에 직접적·선도적으로 대응해왔고 성과 이면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도들을 이행해나가고 있으므로, 박물관을 하나의 표준 지표로 삼아 그 교육적 시도의 내용과 경과, 그리고 의미와 가치 등을 살펴보는 일은 어느 정도 논의의 효용을 가질 것이다.

이 글은 박물관 교육의 측면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운영해온 온라인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 것이다. 성과에 관해서는 이를 낳은 교육 환경, 운영 기반과 결과를 쌓은 교육적 대응·시도 등을 아울러서 그 의미를 모았다. 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의 기술 형식에 필연한 관계적 특성과 시의적 상황, 사회적 책무 등을 헤아리며 한 방향을 걸어두었다. 사회 상황과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더라도 한결같이 준수해야 할 교육적 목표와 실현해야 할 가치에 무게를 두고 쓴 것이다.

---

3) UNESCO 정례 보고,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schoolclosures>(검색일: 2020. 9. 1.).

## II. 박물관의 위기 대응과 온라인 교육 이행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2월 말부터 지역별 감염자가 크게 증가한 이후 위기 수준은 점차 고조되었다.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입학과 개학으로 본격화될 교육 일정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던 학교 현장 전체와 대부분의 박물관·미술관은 선제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곧이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유례없는 혼란에 대응한 교육 방안들이 신속하게 후속되었다. 교육기관은 온라인 개학 추진과 원격교육 체제 구축, 순차 등교 시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sup>4)</sup> 급격한 혼란을 완화하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해갔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했다. 우선 대면 방식의 행사·관람·교육 계획을 철회했다. 곧이어 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대책을 세웠다. 이에 각 권역에 소재하는 소속관 전체의 실적을 아울러 기존에 제작한 전시 및 교육 관련 영상 149건을 취합하고 온라인 학습 영상 자료실 카테고리를 누리집에 신설해서 여기에 영상들을 시대별(선사~통일신라, 고려~대한제국 이후)·주제별(다른 나라와 지역, 박물관의 세계)로 구분하여 탑재하였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149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2020-04-10	3609
148	국립중앙박물관 사물함	2020-04-10	1948
147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시대	2020-04-10	1599
146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2020-04-10	1531
145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2020-04-10	1543
144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	2020-04-10	1475

도 1.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온라인 학습 영상 자료실 및 영상 탑재 사례

이 학습 영상 자료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습 자료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상세 정보를 초등·중등 과정 역사·사회·미술·진로 교과와 단원과 연동시킨 참고 목록도 작성해서 등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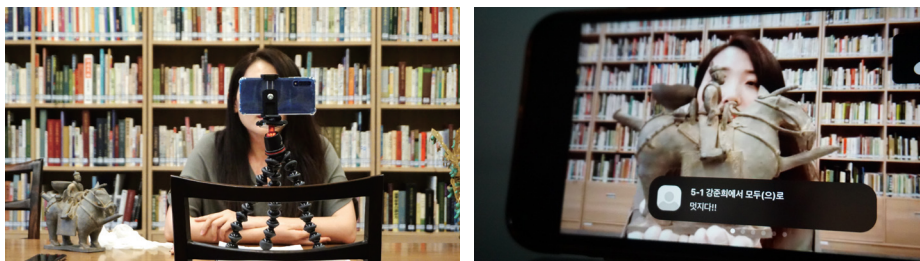
4) 교육부, 『2020 교육정보화백서』(2020), pp.44~47.

표 1. 「온라인 학습 영상 자료 초·중등 교과과정 영상 목록」 사례 일부

연번	기관	제목	분량	관련 교과		
				학년	과목	단원명
1	중앙	부여 능산리에서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다	3:55	초등 5~6학년	사회	[6사03-01] · [6사03-02] (3)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2	경주	황룡사 칠주본기에 담긴 황룡사 구층목탑 이야기	6:50	초등 5~6학년	사회	[6사03-01] · [6사03-02] (3)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중학교	역사	[9역07-03] (7)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고등학교 한국사		[10한사01-02]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3	광주	불교-무형문화재 단청장, 목조각장, 불화장	20:21	초등 3~4학년	미술	[4미01-03] (1) 체험
				중학교	미술	[9미03-02] (3) 감상
4	전주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	0:51	중학교	역사	[9역10-02] · [9역10-03] (10) 조선의 성립과 발전
5	진주	지리산과 남강이 빚어낸 풍요로운 땅	9:09	초등 3~4학년	사회	[4사01-03] · [4사01-04]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6	제주	한라산을 오르다	9:01	초등 3~4학년	사회	[4사01-03] · [4사01-04]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중학교	역사	[9역10-01]~[9역10-01] (10) 조선의 성립과 발전 [9역11-01]~[9역11-04] (11) 조선 사회의 변동
7	김해	박물관 탐방	4:26	중학교	진로와 직업	[9진03-03] (3) 진로 탐색
8	중앙	박물관에서 만나는 청소년 진로 탐색: 고고학자 · 역사학자 · 미술사학자	10:5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과 기술가정 진로와 직업	[6실05-01] · [6실05-02] (5) 기술 활용 [9기가03-08] · [9기가03-09] (3) 자원관리와 자립 [9진02-01] · [9진02-02] (2) 일과 직업세계 이해 [9진03-01] · [9진03-03] (3) 진로탐색 [12진로02-01] · [12진로02-02] (2) 일과 직업세계 이해

교육 분야에서 박물관이 이룬 뚜렷한 성과는 ‘중단 없는 학습 기회’였다. 박물관은 ‘국립’ 기관으로서 여타 공사립 박물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운영 여건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나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의 무수한 박물관이 운영 중단과 폐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sup>5)</sup> 학습 기회를 단절 없이 이어나간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박물관이 예정한 교육 일정의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상태에서, 교육 담당자들은 기회들을 계속 잇기 위해서 교육 운영 형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송출에 소요되는 교구와 장비를 보완하였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온라인 형식에 적합한 것을 선별해서 내용과 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혼선을 최소화했다.



도 2. 시연 단계의 온라인 교육 장면(진로 탐색 교육)

아울러 박물관의 고고학·역사학·미술사학·보존과학 등 전문 학예 분야들과 시대와 주제를 대표하는 소장품·전시품들의 각종 학습 정보를 주제와 소재로 삼아 다종다양한 교육 영상 콘텐츠들을 추가로 제작해나갔으며, 박물관의 누리집과 SNS 매체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그 결과물들을 배포·공유하였다.

5) UNESC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1년 1/4분기에는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약 43%가 폐쇄에 직면했으며 2019년에 비해 수익이 8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UNESCO, 「UNESCO REPORT: Museums around the world in the face of COVID-19」 (April, 2021), pp.4-19. 그 수는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전체 박물관의 수 가운데 거의 90%에 가까운 85,000여 개 기관이 한동안 휴관했던 전년도에 상황보다는 양적으로 완화된 것이지만, 수입의 감소와 재정 위기, 이로부터 파생될 고용 불안 및 사업 축소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감안한다면, 코로나19가 박물관 운영에 미친 위험은 장기적이며, 대대적인 사회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3. 각종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사례

사실 이 같은 동향이 코로나19의 발생·확산을 계기로 전면화된 것은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전부터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박물관 운영 환경의 변동과 온라인 교육의 실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반 마련과 선행 실험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조직 개편과 디지털 업무 전담부서의 신설,<sup>6)</sup> 실감형 영상관·체험관의 조성, e뮤지엄 플랫폼의 개설·관리,<sup>7)</sup> 중요 문화재 디지털 원형자료의 축적·전시, 박물관 이러닝 프로그램의 운영,<sup>8)</sup> 원격교육의 시행, 교육 콘텐츠의 제작 등 여러 부문에서 그동안 시스템과 콘텐츠가 증축되어왔다.

6)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는 디지털박물관의 구축, 실감콘텐츠 체험관의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제작, 디지털 실감 영상관의 운영,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수집·분석, 스마트 기술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http://www.museum.go.kr/site/main/group/list?groupId=planning\\_executive](http://www.museum.go.kr/site/main/group/list?groupId=planning_executive)(검색일: 2021. 5. 3.).

7)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main>(검색일: 2021. 9. 23.).

8) 국립중앙박물관 이러닝 프로그램, <http://musedu.museum.go.kr/main/index.php>(검색일: 2021. 9. 23.).

국립중앙박물관 조직

행정운영단	학예연구실	미래전략담당관
행정지원과	유물관리부	교육문화교류단
디지털박물관과	고고역사부	문화교류홍보과
시설관리과	미술부	전시과
고객지원팀	세계문화부	교육과
	보존과학부	어린이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디자인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도 4. 국립중앙박물관 조직과 디지털 업무 전담 부서

이는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교육 운영 측면에서 적합한 환경과 유용한 자료·경험을 증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들을 토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한 해 동안 다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sup>9)</sup> 스튜디오 몬(M:On)을 건립하여 기술적 구애를 대폭으로 경감한 전천후 교육 설비 및 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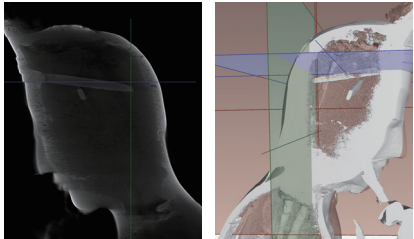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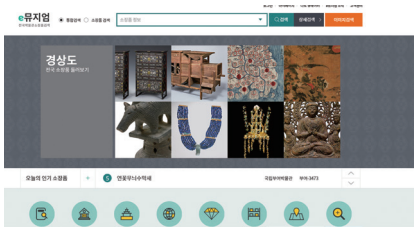
도 5. 교육 스튜디오 M:On의 개국과 운영

9)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달성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의 온라인 교육성과를 정리해보면(이러닝 프로그램 성과 제외), 다음 표와 같다. 표의 결과 수치에 어린이박물관의 교육성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2020년				2021년(10. 31. 기준)	
	분야	종수	내용	참여인원	종수	참여인원
1	청소년	5종	교과 연계 · 진로탐색 등	105회 4,735명	7종	139회 4,943명
2	가족	1종	전시 감상	4회 343명	1종	12회 328명
3	성인	3종	강좌 등	29회 6,377명	4종	44회 4,283명
4	문화취약계층	-	장애인	-	1종	2회 106명
5	외국인	4종	외국인 학교 · 재외동포 등	12회 269명	3종	8회 245명
6	전문인력	4종	교사 · 학예인력 · 심포지엄 등	7회 2,832명	2종	3회 2,172명
7	기관협업	2종	박람회 등	6회 1,002명	-	-
합계			19종 163회 15,558명		208회 12,077명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은 구축 중인 최신의 운영 기반을 향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전시점에서는 크게 ① 설비·장비 등 수단의 디지털화, ② 콘텐츠의 디지털화, ③ 경험·체험 공간의 디지털화, ④ 이용자·학습자 상호 관계의 디지털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단의 디지털		
콘텐츠의 디지털		
공간의 디지털		
관계의 디지털		

도 6. 국립중앙박물관의 유형별 디지털화

이러한 정책적 방향과 기술적 시도 역시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박물관이 적절한 실적과 성취를 이뤄나가는 데 유리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up>10)</sup> 실제로 코로나19의 유행 이전인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ICT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매체가 학교 교육 체제와 교실 수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왔다.<sup>11)</sup> 즉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형식을 교육 요소로 채택하는 일은 코로나19의 발생과 함께 갑자기 부상하여 교육 담당자들이 수행하게 된 임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기술 요소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박물관의 교육과정에서 적절히 적용한다면, 박물관 내외의 운영 환경 변화 앞에서도 교육성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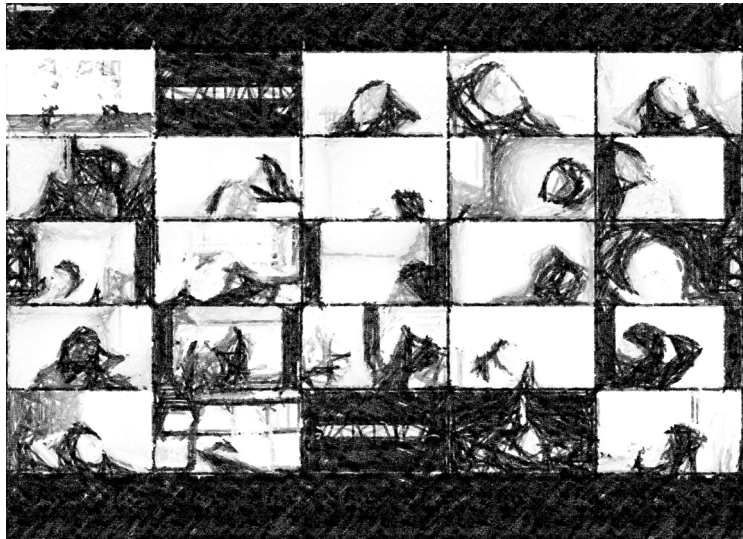
### III. 온라인 교육 운영 성과와 의의

온라인 교육의 집중적인 운영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했던 기존 교육의 관성에 견주어 유의미한 전환점이 되었고, 운영 경과에서 몇 가지 의의가 있었다. 대체로 비대면 학습자들은 개별 주체로서 스마트폰·태블릿·컴퓨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동해 관리자의 통제로부터 다소 분리된 상태의 온라인 공간에 들어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소통하였다.<sup>12)</sup> 학습자들이 화면으로 나타내는 참여의 동작과 표정, 그리고 문장으로 드러내는 의사표현의 빈도와 내용은 교육 형식의 변화로 목격하게 된 새로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급 구성원들이 단일한 경로로 참여한 경우보다 구성원 각각이 개별적 경로로 참여한 경우일 때 좀 더 두드러졌다.

10) 학습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매체를 활용해 콘텐츠를 체감하고 구축된 관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공감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은 상당한 교육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험의 재료가 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상호작용성·네트워크성·복제가능성·조작가능성·복합성·접근성·이동성·상징성·정보전달성·감각자극성·비동시성 등의 표현 특성을 갖는데, 이 가운데 사용자가 미디어와 연결되어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반응·교환하는 '상호작용성'과 전 세계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연결망을 가리키는 '네트워크성'(라혜정·김연희, 「국립박물관 디지털 미디어 전시대체 활용 방안 연구」, 『차세대컨퍼런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집』 10-3(2021), p.283)은 교육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형식을 적합하게 활용한다면, 교육 기회를 계기로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이 사회적 성숙으로 확장되는 데 유의미한 요소가 될 것이다.

11) 玉賢眞, 「초등 사회 교과서 역사 영역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양상」, 『歷史教育』 149(2019), p.149.

12) 물론 학습자들 전체의 반응에 대한 낙관적인 관찰 결과가 박물관 온라인 교육의 비일상적 기회, 일회성 참여, 자율적 활동, 실시간 쌍방향 소통 등 학습의 형식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결과에 내포된 의미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겠다. 실제로 일방향 위주의 온라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학교 현장에서 학습 동기가 없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쉽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교수자로부터 나온 바(김혜진,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2020), p.630; 김경인, 「COVID-19 상황 속 초등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초등교육연구』 34-2(2021), p.174) 있다.



도 7. 교육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이들의 공통된 태도는 대면·방문 학습자의 성향과 명확하게 대비되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교육 효과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으며, 새로운 온라인 교육을 기획하거나 대면 교육에서 학습자 개인의 동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학습 요소까지 구상해보게 되었다. 한 예로 초·중·고 5학년에서 중등 1학년 연령대의 청소년 학습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 보물을 찾아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고를 들 수 있다.



도 8. ‘국립중앙박물관 보물을 찾아라’ 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안내서

처음 이 박물관 현장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개별 학습자가 일정 시간 전시실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율적으로 전시품의 재료·기법·무늬·용도 등을 소재로 일련의 임무들을 해결하고 최종에는 학습자들이 모여 공동의 임무를 함께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그 목적은 개인적 사고·성취와 집단적 공유·통찰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과 학습자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맡아야 하는 교사들이 안내서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

움을 호소하여, 불가피하게 박물관의 교육 인력이 교육 단위를 조별로 편성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교육에서 확인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성향과 학습 능력으로 판단컨대, 교육 참여 단위가 단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개별 학습 기회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 학습은 단체 학습에 비해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더욱 자극하고 자기주도적 사고와 성취를 고조할 수 있다. 단체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발달을 유도하는 단계가 과정상 선행한 다음 학습자들이 체감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공감할 수 있는 단계가 후속된다면, 학습자의 경험과 역량은 개인을 성장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학습자 집단을 교육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형식의 특성상 다소 불가피하였으나,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나 학습자의 행동 의지를 고려해서 구성한 교육 방식도 학습자들의 집중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전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 단위 내에서 학습과 체험을 공식처럼 단계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교 수업의 단위시간, 학습 집중력의 지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핵심 정보와 의미를 이야기의 틀에 담아 전달해야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내용·의미의 전달 효과가 우수했다. 이러한 방식과 효과는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되고 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는 단계에 진입해도 계속 참고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동이 차단되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고 정서적 활동에 자의로 나서기 어려웠던 학습자들의 처지에 맞춰 그들의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신체활동’을 교육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의 반응을 근거로 추론해보면, 경험의 효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과 불만이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다소 완화되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인 순간에 그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문화 기관에서 학습자의 신체와 정서를 고려한 교육 기회를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 9.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 보물을 찾아라-신체활동' 운영 사례

교육의 주관 권역이 확대되면서 방문의 물리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간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도권 학습자들을, 소속 국립박물관들은 기관 소재지의 학습자들을 일반적인 대면 교육 대상으로 삼아왔다. 온라인 교육 형식은 이러한 기본 틀을 대폭 조정하게끔 했다. 사실상 권역의 범위와 그 한계를 산정하는 준비 절차가 무의미해졌다. 이제 제주의 학습자들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sup>13)</sup> 각지의 학습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공통의 또는 이질의 지역성·역사성에 기초한 문화 콘텐츠를 함께 탐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일은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다.

교육 담당자들은 제한된 기회들을 압축해 교육 효과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성의 교육 운영 체제 전반을 점검하였다. 한 예로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 박물관과 학교의 다양한 학습 주제에 맞춰 중수를 늘리며 개설해왔던 교육들을 크게 전시 감상, 교과 연계, 진로 탐색의 틀로 분류하고 체제 내의 상대적인 교육 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다. 온라인 교육 운영 과정에서 기회의 양보다 질의 교육적 의미를 절감한 만큼, 체제는 효율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체제 정립의 중요성은 대상의 성격에서 차이가 적지 않으나, 사회적 배려계층, 특히 장애가 있는 학습자를 아울러서 교육 운영의 현황과 대상 간의 상대적인 균형을 가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제와도 밀접하다.

한편 교육 담당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했다. 그간 학습자들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이들은 교

13)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는 국립제주박물관과 공동으로 2020년 12월 2일-3일에 걸쳐 특별전 '한겨울 지나 봄 오듯-세한歲寒 평안平安'(2020. 11. 24.-2021. 4. 4.)과 연계해서 추사 김정희의 특정한 삶과 '세한도'의 창작을 주제로, 서울과 제주의 초등학교 2개교의 5학년 2개 학급 학습자들을 온라인으로 동시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랜선 박물관-세한도'를 2회 진행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0 교육프로그램 자료집』(2021), pp.35-36). 2021년에는 국립진주박물관과 협업하여 10월 7일-28일간 매주 목요일 서울과 진주의 중학생들이 특별전 '중국 고대 청동기-신에서 인간으로'(2021. 9. 16.-2021. 11. 14.)와 연계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중국 고대 청동기의 역사와 특징을 탐구하였다.

육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적·인식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해와 경험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교육 상황의 변동에 대처하는 데 유효한 역량이 될 것이다. 온-오프 교육 환경의 전환기에 든 교육 담당자가 자기 성장을 소홀히 한다면, 학습 정보들을 자기주도적으로 더욱 빠르고 능숙하게 수용·조합·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학습자들의 학습 속성과 속도, 그 수준에 걸맞은 교육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로 본격화된 지금의 환경 전환 수준은 과거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예상한 기술적·물질적 미래상을 이미 초월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철학적 성찰의 차원에까지 본격적으로 제언되고 있다.<sup>14)</sup>

#### IV. 온라인 교육의 성찰적 과제

이러한 의의들과 더불어 그동안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며 변화를 체감하고 전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관련 깊은 과제 몇 가지를 짚어보게 되었다. 그 핵심은 온라인 교육이 ‘모두를 위한 기회’로 자리매김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교육 담당자의 오랜 고민 가운데 하나로, 개발자 우위의 콘텐츠가 아니라 사용자 우위의 콘텐츠가 학습 내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디바이스의 작동권을 소유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기회에 접속한 경우, 자의적으로 학습 상황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관심·흥미를 더욱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

물론 비대면의 상황으로 교육 담당자와 교수자가 ‘홀어진’ 학습자 개인의 참여도와 반응성을 면밀하고 부단하게 관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학습의 진행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참여와 소통에 능숙한 성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단발적인 사실이 과다한 지식 정보보다는 논리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지성 정보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면, 잘 대답하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제대로 질문하는 능동적 학습자를 육성하는 데 그들의 성향은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 소장품·전시품의 학습 내용들과 다양한 요소는 학습자의 단편적 암기력이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과 이로부터 증진될 수

14) 디지털 기술의 효용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지만, 교수자가 전인적인 교양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술 수단의 이용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할 때 기술적·상업적 계산이 아니라 공공의 교육적·학문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제언(소병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즈음한 원격 교육 대세론의 철학적 재고』, 『哲學研究』 159(2021), pp.59-60)이 대표 사례로서 참고가 된다.

있는 사회적 통찰력을 신장하려는 목적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sup>15)</sup>

아울러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유통을 통해 경험과 의미가 공유·공감될 수 있도록 공동의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이 작은 네트워크들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각자의 디지털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매개로 분리된 학습자들은 온라인 공간의 기회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고 그들의 상호관계도 이어져 진정한 사회적·교육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형식에 내재된 근본적인 연결 방식의 한계 때문에 결여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상호 정서적 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발달 정도·성취 수준·관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박물관의 학습 자료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대면 형식에 활용하던 체험·교구를 옮겨 쓸 것이 아니라 온라인 형식에 적합한 방식·유형을 개발해야 한다.<sup>16)</sup> 코로나19에서 말미암은 위기로 선택하게 된 새로운 시도가 학습자들에게 이질적이지 않도록 주의를 꼭 기울여야 하겠다.

교육 환경의 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강화되어온 교육 담당자들의 기술적·인식적 역량도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담당자들은 플랫폼·메타버스 등 미래의 교육 운영 체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관련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 변동에 효과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15) 역사적 사고력에 대한 정의나 내용 규정은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식에 따르면, ① 역사적 탐구력, ② 역사적 상상력(김한중,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과 그 교육적 의미」, 『이원순교수 정년기념 역사학논총』(교학사, 1991), ③ 연대기 파악력, ④ 역사적 판단력(최상훈, 「역사적 사고력의 학습 및 평가방안」(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등으로 정리되며(金漢宗,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歷史教育』 113(2010), p.6에서 재인용), 이들은 역사적 사고력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로서 각각은 사고력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세부기능들을 포함한다(崔祥勳,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와 역사학습목표의 설정방안」, 『歷史教育』 73(2000), pp.11-25). 역사교육의 차원에서 이처럼 학습자의 인지 역량 향상에 유효한 기능 요소들을 아우르는 사고력은 대체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으로(이영효, 『역사 교육 탐구』(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pp.100-101) 규정된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회의 역사적 궤적, 문화적 산물을 핵심적인 학습 내용으로 다루는 박물관 교육이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이행된다면,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성취는 자기 인식의 가까운 범위를 넘어서 사회 통찰의 폭넓은 범주까지 확장될 것이다.

16) 다수의 문화기관들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과 확산 속도 속에서 교구를 사전에 배포하고 기관과 학습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교구를 제작하는 교육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학습자가 유형의 교구를 직접 제작하면서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방식이 의존하는 온라인 교육 형식과 관련하여 재고해볼 점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의 집중력·몰입도 등을 고려하여 시간상 단축 운영이 불가피한데, 교구 제작 교육 방식 가운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제한된 시간의 대부분이 학습자가 재료를 파악하고 공정을 따라가는 단계에 배정되며, 교구의 구성도 학습자가 제작 대상의 실체를 그대로, 또는 가깝게 연상하기 어려운 소재나 형태로 선정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긴 쉽겠지만, 그들의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고 대상이 체현하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자신의 의미로 전화하도록 돕기에는 시간과 과정의 한계가 크다. 최근 개최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특별전 '시대의 얼굴, 세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2021. 4. 29.-8. 15.)·'호모 사피엔스: 진화∞관계&미래?'(2021. 5. 18.-9. 26.)와 연계하여 개발·운영한 청소년 개인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특별한 상상, 무한한 감상-다윈, 루시를 만나다'에서는 그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와 학습 의식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고, 학습자들이 고취된 동기와 의식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요소를 반영하여 '전시 학습 리플릿'과 '전시 담당 큐레이터의 추천 전시품 카드'로 구성해서 제작한 교구를 교육이 끝난 이후 학습자들에게 일괄 발송하였다.



도 10. 치매 노년층 대상 현장 교육 프로그램 '문화재 오감표현' 운영 사례

사실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문제는 '디지털 소외'이다. 이 문제는 디지털 교육 수단의 소유·사용 등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참여와 관계 등 정서적 측면에서도 폭넓게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형식에서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 그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은 간접적인 박물관 교육 참여와 온라인 매체의 사용, 역사문화 콘텐츠의 학습 등을 아주 불편한 학습 방식이자, 매우 불안정한 관계 연결 방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7)</sup>

물론 온라인 교육 형식은 배려계층 가운데 문화 사각지대에 있던 학습자들의 물리적 접근성을 다소 높였다. 하지만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 형식과 기술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듯하다. 장애인 대상의 온라인 교육을 기획할 때는 이제 참여·학습 하중의 경감을 주요 목표로 세우고, 신체적 접근성에 더해 기술적 접근성까지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애인들이 박물관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가고 있는 박물관의 사회정책 수립 차원에서 그 실천과 교육적으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돌발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충돌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실존적 호소가 적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비장애인의 일상적 인식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편견은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장애에 대한 편견만큼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sup>18)</sup>

17) 실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으로 전국의 일반 초등·중등·고등학교들이 불가피하게 진행했던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학교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데, 가장 큰 이유로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을 들었다(김경근,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 『한국의 사회 동향 2020』(2020), 통계청, pp.149-155). 이와 같은 평가는 특수학교에서 좀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최근에 수행된 특수학교의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를 보면, 교사 집단 및 보호자 집단은 학습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효과도 낮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다(김대용·최진혁,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 실태 및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5-2(2020), pp.94-99).

18) 리처드 샌델 지음, 고현수·박정연 옮김, 『편견과 싸우는 박물관』(연암서가, 2020), p.232.



박물관은 공공성을 수반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교육적으로 해소할 의무를 갖는다.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변동의 추세와 그 공익적 지향을 헤아리면서 이들을 위해 안전한 대면 교육 환경을 모색하는 동시에 장애 유형과 학습 방법에 적절한 온라인 교육 기회들을 개발하고<sup>19)</sup> 필요에 따라 연동하는 현장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머지않아 그들이 직접 장애인 대상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외부의 수많은 문화기관 사이에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과 인력, 사업 이행 여건의 격차로부터 기관과 기관,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도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뮤지엄네트워크조직(Network of European Museum Organizations)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된 박물관·미술관의 폐쇄는 단기적으로 관람객의 입장 제한으로 인한 기관 수익의 급감과 적자, 운영 인력의 감축, 중장기적으로 재정 결핍에서 비롯된 인력 부족에 따른 전문성 약화와 문화 창의 분야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 환경을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도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sup>20)</sup>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변화를 맞아, 기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특색 있는 전시·학습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 전환의 상황 속에서 예산 확보와 인력 운용 등의 운영 문제에 직면한 박물관들과의 정책적 연대가 요구된다. 즉 각급 문화기관과 사회 공동체, 그리고 정부가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뮤지엄’이라는 기관 자체의 설립 및 운영 목적 그리고 그 특수한 가치의 이해를 전제로 한 협력 체계가 가동될 시점에 이르렀다.<sup>21)</sup> 장기적으로는 조직적인 교육 네트워크의 체결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구축과 같은 시도로 이미 시작된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관계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19) 이러한 방향에서 장애 학습자가 소속된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온라인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적·관계적 행동 양식의 개선 효과를 거둔 학습 사례(최주원·이숙향, 「온라인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과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7-1(2021), pp.128-131)가 주목된다.

20) NEMO, 「Surve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Situation on Museums in Europe」(April 7, 2020); 김연재,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는 뮤지엄 운영환경의 현실과 대응 방안」, 『한국예술연구』 29(2020), pp.9-14에서 재인용.

21) 김연재, 위의 논문(2020), p.24.

## V. 박물관 교육의 사회적 지향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박물관과 미술관은 궁전이나 신전을 의도적으로 모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모방은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진화를 주도한 엘리트층의 근대적 취향이 그러한 건축 구조물이 갖고 있는 형식적 균형·위엄과 거뒀보거나 사라진 신앙의 힘을 오늘날의 예술 예찬으로 연결지으려는 의도를 뜻하는 것이다.<sup>22)</sup> 것처럼 고대·중세의 전형을 좇으며 전통적인 권위를 표상하는 동시에 근대 전환기의 국가적·국민적 이념의 가치를 고양했던 신고전주의 사조의 건축물이 오늘날에는 거의 건립되지 않는다. 유행의 단절은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건축물들이 과거에 추구했던 가치를 더 이상 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박물관의 역사적·사회적 발전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기술의 혁명적 발전 속도와 개방의 범위에 비하면 훨씬 완만하지만, 박물관 역시 근대 이후 모두를 위해 개방하는 방향으로 발달되어왔다.<sup>23)</sup> 그러한 경로를 지낸 현대의 박물관은 자유의지를 가진 대중의 향유를 목적으로 존립하고 있다.

표 2. 박물관의 역사적·사회적 발전 과정

구분	고대·중세	중세 말	근대	현대
컬렉션 주체	성직자·권력자	권력자·전문가	전문가·개혁가·자본가	대중
컬렉션 목적	성물 보관	권위 과시	정신 훈육	자아실현
컬렉션 공개 형식	폐쇄	한정 개방	개방	
대중 권리	없음	특권 관찰	제한 관람	자유 관람·참여
박물관 역사성	사유	전유	공유	향유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온라인 연결에 미치는 속도는 사람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다. 디지털로 창조되는 현실들은 매우 정밀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기술을 자유롭게 보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과 접속 압력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에 자신의 대역을 적극적으로 파견하여 현재의 삶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가공의 삶을 사는 일

22) 캐롤 던컨 지움, 김용규 옮김, 『미술관이라는 환상-문명화의 의례와 권력의 공간』(경성대학교 출판부, 2015), pp.29-55.

23) 제시한 표는 박물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연구한 학문적 인식들에 학술적 판단을 덧붙여 정리한 것으로, 다음의 연구 성과들로부터 일련의 인식을 추출해 종합하였다.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살림, 2004);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예경, 2005); 도미니크 폴로 지움, 김한결 옮김, 『박물관의 탄생』(둘레개, 2014); 김혜진, 『「기억」의 딸들을 위한 전당-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책과함께, 2018); 앙게 테 헤젠 지움, 조창오 옮김, 『박물관 이론 입문』(서광사, 2018); 키어스톤 F. 라탐·존 E. 시몬스 지움, 배기동 옮김, 『박물관학의 기초-진화하는 지식의 시스템』(주류성, 2019); 리아넨 메이슨·엘리스터 로빈슨·엠마 코펠드 지움, 오영찬 옮김, 『한 권으로 읽는 박물관학』(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상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사회상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는 기술이 관계의 상호 의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연결 사회에서, 교육의 사회적 책무로 본다면 사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바쁘고 섬세하게 노력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온라인 교육은 병행해야 할 필수 형식이 되었다. 교육적 기술 수단이자 관계 통로로서 온라인 형식 역시 코로나19만큼 사람과 사람, 공간과 사람을 격리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마트’ 시대, ‘기술’보다 ‘사람’이 더 영리해야 하겠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모두를 이룰 수 있는 온라인을 ‘온라인(溫羅人)’, 곧 ‘사람을 따뜻하게 망라하는 관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서로 살펴보면서 개인과 개인, 개인들과 집단, 그 전체 공동체의 성찰적 관계망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집단지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디지털이 공동체를 분해하고 개인과 개인을 차단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공존에 필수적인 관계를 계속 결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더욱 온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테지만, 현재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에 계속 찾아올 위기들의 선제에도 도움이 될 노력이 아닐까 한다.

결국 온라인이 매우 유능한 최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하고 적절히 연결하는 사회적 동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지나며 꼼꼼하게 잇고 단단하게 묶은 온라인의 관계망을 타고 지식·지혜·지성이 모두의 방향으로 흘러 닿아서, 누구나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박물관 교육은 여러 가지 전인적 교육 요소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박물관은 다양한 모두를 폭넓게 맞이하는 사회 학교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혜진, 「‘기억’의 딸들을 위한 전당-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책과함께, 2018)
- 도미니크 폴로 지음, 김한결 옮김, 『박물관의 탄생』(돌베개, 2014)
- 리아넨 메이슨 · 앨리스터 로빈슨 · 엠마 코필드 지음, 오영찬 옮김, 『한 권으로 읽는 박물관학』(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 리처드 샌델 지음, 고현수 · 박정언 옮김, 『편견과 싸우는 박물관』(연암서가, 2020)
-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예경, 2005)
- 양케 테 헤젠 지음, 조창오 옮김, 『박물관 이론 입문』(서광사, 2018)
- 윌리엄 H. 맥닐 지음, 허정 옮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한울, 1998)
- 이영효, 『역사 교육 탐구』(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살림, 2004)
- 캐롤 던컨 지음, 김용규 옮김, 『미술관이라는 환상-문명화의 의례와 권력의 공간』(경성대학교 출판부, 2015)
- 키어스톤 F. 라탐 · 존 E. 시몬스 지음, 배기동 옮김, 『박물관학의 기초-진화하는 지식의 시스템』(주류성, 2019)

### 〈연구논문〉

- 김경근, 「코로나19와 초 · 중등교육」, 『한국의 사회 동향 2020』(2020), 통계청
- 김경인, 「COVID-19 상황 속 초등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초등교육연구』 34-2(2021)
- 김대용 · 최진혁,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 실태 및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5-2(2020)
- 김연재,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는 뮤지엄 운영환경의 현실과 대응 방안」, 『한국예술연구』 29(2020)
- 김한중,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과 그 교육적 의미」, 『이원순교수 정년기념 역사학논총』(1991)
- 金漢宗,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歷史教育』 113(2010)
- 김혜진,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2020)
- 소병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즈음한 원격 교육 대세론의 철학적 재고」, 『哲學研究』 159(2021)
- 玉賢眞, 「초등 사회 교과서 역사 영역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양상」, 『歷史教育』 149(2019)

崔祥勳,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와 역사학습목표의 설정방안」, 『歷史教育』 73(2000)

최주원 · 이숙향, 「온라인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들의 사회성  
기술과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7-1(2021)

#### 〈보고서〉

교육부, 「2020 교육정보화백서」(2020)

국립중앙박물관, 「2020 교육프로그램 자료집」(2021)

NEMO, 「Surve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Situation on Museums in Europe」(April 7, 2020)

UNESCO, 「UNESCO REPORT: Museums around the world in the face of COVID-19, 2021」(April,  
2021)

#### 〈웹사이트〉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schoolclosures>

[http://www.museum.go.kr/site/main/group/list?groupId=planning\\_executive](http://www.museum.go.kr/site/main/group/list?groupId=planning_executive)

<http://www.emuseum.go.kr/main>

<http://musedu.museum.go.kr/main/index.php>

## Abstract

### The attainments and reflective tasks of responding to social crisis in museum education

OK Jaewon

Educator, Educat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article suggests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online education that National museums of Korea(NMK) has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social crisis in terms of education in terms of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operation to pursue after the COVID-19 pandemic.

NMK has made various attempts to open the space to visitors and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such as exhibitions and education despite the gradually escalating infection crisis since the first COVID-19 confirmed case occurred in Korea in January 2020.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education, NMK has provided online learning video materials linked to school subjects and operated its own educational programs without interruption while keeping an eye on the trend of school sites that promoted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In addition, various educational video contents were produced and actively shared with communities outside the museum based on various specialized fields of the museum, collections, and various learning information on exhibits. In fact, this trend has not been broadened due to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VID-19.

NMK has laid an essential foundation for changes in the museum's operating environment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online education, which will be in full swing in the near future, and have continued experimental attempts. Representatively, there are the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dedicated to digital affairs,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immersive digital gallery and VR tour, the accumulation and exhibition of important cultural assets, the operation of museum e-learning programs, and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Using these systems and contents, the museum was able to achieve considerable educational results while stably conducting online education and equipped with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epidemic. On top of that, the digitization work promoted by means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 contents, experience and experience spaces, and user-learner

interrelationships is expected to serve as an advantageous foundation for museums to achieve proper performance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the future.

The museum was able to achieve considerable result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online education. First, compared to the case of face-to-face education, learn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and communicated were found. In addition, the effect of consistent story-oriented education that can lead to learners' concentration and response was also confirmed. Also, the effect of physical education that can relax the tension of isolated learners was also enhanced. The online format has been greatly expanded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need to emphasize it separately. Another important achievement is that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and realizing necessary online education, education staff were able to check the relative balance between educational topics and targets and improve their capabilities.

Among these educational significances, we had an important reflective task. The key point is that the advantages of online education must be established a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Basically, in a situation where learners' choices are strengthene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educational method that can focus them online and to produce content that can fascinate them.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historical thinking skills and to prepare missions and opportunities to lead mutual relations and empathy.

Throughout a long history, museums hav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opening up for everyone. In the reality that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greatly affects the interdependence of relationships, efforts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people are very necessary. We should use online properly as a way to maintain a reflective network of communities so that online can cover people warmly.

Key words: Museum education, COVID-19 pandemic, online learning, educational significances, reflective network of communities

